

第61回 發明教室

3月 11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3月 11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61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영 골드 寶玉善 사장과 포스電子…○
- …朴鍾具 전무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대…○
- …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자동차 전조등 조광장치

포스電子 朴 鍾 具 전무

뛰어난 발명으로 평가되어 자금주를 만나 포스電子를 설립, 전무로서 발명과 기업을 함께 하고있는 朴鍾具씨.

이미 10건의 발명을 양도한 바 있는 朴씨는 지난 87년 뉴욕국제발명전과 88년 서독국제발명전에서 각각 동상을 차지했으며, 87년 발명의 날에는 우수발명인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자동차 전조등의 조광장치 및 주정차 점조등 제어장치는 '88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다.

「자동차의 야간운행시 주행중에 시야장애 현상 및 암흑상태를 해소하고, 부수적으로 편리한 기능과 교통사고를 방지해 보고자 이 발명을 하게됐지요.」

81년 이 발명을 시작한 朴씨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나 이

론과 실제가 너무달라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朴씨는 시작 첫째 손수 시제품을 만들어 실험을 거쳐 85년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는데, 항공고를 거치느라 최근에야 공고되었다고 한다.

朴씨에 따르면 이 제품은 사람의 눈동자가 어두움과 밝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어 사물을 판별하듯이, 빛의 광도를 운전자 눈조리개의 운동폭에 맞추어 자동 조절하여 시야장애를 해소하는데 기술적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하는 라이트 조절장치로써 시야장애 해소 기능과 함께 인간의 눈조리개와 컴비네이션을 이루어 착시·착각·눈부심 현상을 방지한다고 한다.

또 눈·비·안개시 시계를 확장해 주고, 횡단보도나 신호



〈朴鍾具 전무〉

대기시에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는 기능도 한다고 한다.

朴씨는 이 발명을 위하여 집에 연구실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그결과 86년말 자금주를 만나 포스電子를 설립하는 행운이 있었다.

朴씨는 이 발명외에도 특허 5건과 실용신안 5건 그리고 의장 1건이 있는데,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양도되어 실용화되었다. (※)